



이재영 이다영



박철우



이경봉

쌍둥이 자매 한 팀서 뛰나 배구 역대급 FA시장 개막

〈국가대표 이재영·이다영〉

한국배구연맹, 남녀 38명 공시
男, 대한항공·삼성화재·우리카드
각각 4명씩 포함 총 20명
女, 이재영·이다영·박정아 등
국가대표 출신 대어급 선수 즐비
23일까지 각 구단과 자유 협상

한국배구연맹(KOVO)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남녀 선수 38명을 지난 10일 공시했다. 전날 2019~2020시즌 남자부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은 나경봉(우리카드)을 필두로 박철우(삼성화재), 박주형(현대캐피탈) 등 남자 선수 20명이 FA 시장에 나온다. 구단별로는 대한항공, 삼성화재, 우리카드가 4명씩으로 가장 많다. 여자부에는 대어급 선수가 즐비하다. 국가대표를 이끄는 '쌍둥이 자매' 이재영(흥국생명)과 이다영(현대건설)을 비롯해 공격수 김희진(IBK기업은행), 박정아, 센터 정대영(이상 한국도로공사), 한송이(KGC인삼공사) 등 18명이 새 계약을 추진한다. 이재영과 이다영이 한 팀에서 뛸 수 있을지가 이번 FA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 도로공사에서부터 5명의 FA가 나오고, 인삼공사에서도 4명이 FA로 풀린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공시 후 2주간인 23일 오후 6시까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타 구단의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24일 낮 12시까지 보호 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FA를 보낸 구단은 27일 오후 6시까지 보상 선수를 선택한다. 'FA 등급제'에 따라 남녀부의 보상 방법은 각각 다르다. 남자부를 보면, 연봉 2억5000만원 이상을 받는 A등급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이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선수 전년도 연봉 200%와 보호선수(영입 FA 포함 5명)의 1명을 주거나 전년도 연봉 300%를 보

상하면 된다. 연봉 1억원~2억5000만원 구간의 B등급과 1억원 미만의 C등급 선수와 계약하면 보상 선수 없이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의 300%, 150%를 각각 보상할 수 있다. 여자부에선 연봉 1억원 이상의 A등급 선수를 데려가면,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영입 FA 포함 6명)의 선수 1명을 보상하거나 전년도 연봉 300%를 주면 된다. B등급(5000만원~1억원)과 C등급(5000만원 미만)의 보상은 남녀부와 같다. /연합뉴스

조혜연 9단 여기사 첫 우승

대주배 바둑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김영환 9단에 반집승



조혜연 9단이 베테랑 기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주배에서 여자기사로는 최초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조혜연은 지난 10일 경기도 K바둑스튜디오에서 열린 제7기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결승전에서 김영환 9단에 백반집승을 거뒀다.

이 대회 결승에 세 차례 오른 끝에 처음 우승을 차지한 조혜연은 대주배 출범 이후 우승한 최초의 여자기사이기도 하다.

대주배는 만 50세 이상(1970년 이전 출생) 남자기사와 만 30세 이상(1990년 이전 출생) 여자기사 69명이 참가해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다.

조혜연은 이날 결승에서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 김영환을 상대로 초반 접전에서 실패해 불리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중반 이후 후반을 사감하며 전세를 뒤집은 조혜연은 김영환의 추격을 반집으로 막아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다.

조 9단은 "2012년 이후 첫 우승인데 큰 기전인 대주배에서 더욱 기쁘다"라며 "대주배 2연패는 물론 다른 기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체조' 신재환 올림픽 꿈 성큼

국제체조연맹, 취소한 대회 성적 인정...도마 세계랭킹 공동 1위로

남자 기계체조의 신재환(22·한국체대)이 도쿄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뒀다. 국제체조연맹(FIG)은 9일(현지시간) 화상 집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티켓 배분 방식 등을 논의했다. FIG는 3월 코로나19 우려로 결승전을 치르지 못하고 끝난 아제르바이잔 바쿠 FIG 종목별 월드컵에서 예선 성적을 결승 성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대회에선 개인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선수들에게 랭킹 포인트를 준다. 도마 예선 1위를 차지하고도 코로나19로 결승이 취소된 바람에 빈손으로 귀국한 신재환은 FIG

의 결정으로 우승 포인트 30점을 챙겼다. 당시 신재환은 도마 1, 2차 시기 평균 14.883점을 획득해 예선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랐다. 신재환은 '행운의 30점'을 보태 2018~2020년 도마 세계랭킹 공동 1위(90점)로 뛰어올랐다. 대한체조협회 관계자는 "신재환이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을 뺀 나머지 선수 중에서 도마 랭킹이 가장 높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남자 체조는 도쿄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따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의 출전권 4장을 확보했다. 신재환이 FIG의 티켓 배정에 따라 최종으로 출

전권을 수중에 넣으면 우리나라 올림픽 출전 선수는 5명으로 늘어난다. 신재환은 또 2012년 런던올림픽 이래 9년 만의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양학선(28·수원시청)과 도마에서 한국의 메달 사냥을 쌍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는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보고 월드컵, 대륙별 선수권대회 등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 일정을 새로 편성해 내년 6월까지 티켓 배분을 마무리하고, 이미 본선 출전권을 따낸 선수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쿄올림픽 체조 종목에는 남녀 기계체조, 남녀 트램플린, 리듬체조를 아울러 총 32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이 중 75%가 도쿄행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고향서 '황제 훈련' 논란

현지 경기장 독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속팀 일정이 중단되면서 고향인 포르투갈에서 지내는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현지 스타디움에서 개인 훈련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

르면 호날두는 고향인 포르투갈 마데이라 지역 프로축구팀인 CD 나시오날이 사용하는 마데이라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포르투갈에서는 1만5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400명 넘게 숨졌다. 정부는 5월 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부활절(12일) 전후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호날두의 사진은 특히 논란

을 일으켰다. 사진 속 호날두는 골키퍼를 두고 슈팅 연습을 하고, 다른 복수의 관계자와 멀지 않은 거리에 함께 서서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 밖의 시설, 그것도 클럽의 스타디움 전체를 혼자 쓰며,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호날두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페드로 라모스 마데이라 지방 보건장관은 "호날두가 훈련하는 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키면 누구나 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

지방체육회장협회장 추대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방체육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체육회장 간담회에서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17개 시도체육회장 만장일치로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은 민선 체육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체육을 총괄하는 수장을 맡게됨으로써 시·도체육회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도 선임됐다.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 등을 행사한다. 광주에서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선임된 사례는 김 회장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과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선임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며 "시·도체육회장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체육의 결속력을 다져 나갈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방체육회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체육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협의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픈 더 도어
3관	오픈 더 도어,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 더 타닝,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4관	n번째 이별중
5관	인버저블맨
9관	오픈 더 도어, 1917, 주디
7관	씨네커풀 월드 워 Z, 정직한 후보
8관	씨네커풀 1917, 기도의 힘, 더 타닝,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p>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영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p>	<p>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p>	<p>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p>
---	---	---